

칸트 윤리학과 니체의 도덕비판

차민성

목차

01 | 주요어

02 | 칸트 윤리학

03 | 도덕의 병리학

04 | 주인도덕 노예도덕

05 | 자기기만 메커니즘

06 | 칸트의 대응

07 | 존중과 거리의 파토스

주요어

01	<u>도덕의 병리학</u>	도덕적 동기가 자기기만과 원한에 의해 왜곡되어 인간을 왜소화하고 퇴락시키는 과정을 분석하는 것
02	<u>주인도덕</u>	강하고 우수한 인간이 자기 자신을 긍정하며 스스로 가치의 기준을 창조하는 도덕
03	<u>노예도덕</u>	강한 자에 대한 원한을 바탕으로 자신의 약함과 무력함을 선한 가치로 재해석하는 도덕
04	<u>거리의 파토스</u>	탁월한 인간이 자신의 고귀함을 유지하기 위해 평범한 인간과 심리적 거리를 두는 태도

칸트 윤리학

01 도덕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제도이다.

02 인간의 존엄성은 이성적 존재라는 점에서 나온다.

03 인간은 자기기만의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 자기성찰을 해야 한다.

04 도덕에는 정직함과 강인함이 필요하다.

05 모든 인간은 도덕적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한다.

도덕의 병리학

01 | 도덕의 병리학 현상 인정

칸트는 인간이 자신의 동기를 완전히 알 수 없기 때문에 도덕이 자기기만이 나 자기학대로 변질될 수 있다고 보았다.

02 | 니체의 병리현상 심화분석

니체는 노예도덕이 원함과 자기기만을 통해 약함을 선한 가치로 바꾼다고 비판했다.

03 | 핵심은 자기기만

노예도덕은 약함을 선으로 만들기 위해 현실을 왜곡하고 그 왜곡을 스스로도 인식하지 못하게 한다.

04 | 병리적 도덕의 결과

이러한 도덕은 인간의 강인함과 진취성을 약화시켜 인간을 왜소하고 평범한 존재로 만든다.

도덕적이하고자 하는 진실한 동기가 자기기만을 통해 약함·위선·자기학대로 변질되어 인간의 성장과 활력을 약화시키는 과정을 분석

주인도덕 노예도덕

01 | 주인도덕

1. 자기 긍정에서 출발
2. 강함, 용기, 도전정신 중시
3. 자신의 기준으로 가치를 창조

자기 긍정에서 출발하여 스스로 가치를 창조

02 | 노예도덕

1. 강한 자에 대한 원한에서 출발
 2. 자신의 약함과 무력함을 선한 가치로 재해석
 3. 강한 자를 악으로 규정 후 자신을 선으로 평가
- 약함→겸손
복수할 수 없음→용서
복종→순종

타자 부정에서 출발하여 약함을 선으로 재해석

자기기만 메커니즘

01

약함의 도덕화

노예도덕은 강한 자를 약으로 규정한 뒤 자신의 약함과 무력함을 선한 가치로 재해석한다.

02

기만을 통한 자기긍정

약함을 선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단순한 사실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선택한 가치인 것처럼 해석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왜곡과 기만을 통해 도덕적 이상이 만들어진다.

03

자기기만의 형성

노예도덕은 자신을 긍정하기 위해 기만을 필요로 하며, 그 기만은 자기기만이어야 한다. 따라서 자신이 왜곡된 해석을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해야 한다.



니체는 이러한 자기기만이 인간을 퇴락시키고 마비시킨다고 본다.

칸트의 대응

01 | 문제인정

인간이 자신의 동기를 완전히 알 수 없으며, 도덕적 행위 속에도 자기기만이 숨어 들 수 있다

02 | 불안정성

자기기만, 위선, 자기학대 같은 현상은 도덕 그 자체가 아니라 인간의 불완전성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03 | 자기성찰

인간이 자신의 동기를 끊임없이 점검하고 도덕법 앞에서 자신을 성찰함으로써 자기기만을 줄일 수 있다

04 | 존중

모든 인간이 도덕적 인격체이므로 존중받아야 한다고 주장

05 | 존엄성

인간은 모두 도덕적 이성의 주체이므로 동등한 존엄성을 가진다.



존중

존중과 거리의 파토스

칸트	존중	도덕적 인격
01		도덕적·실천적 이성의 주체
02		동등한 존엄성
03		평등한 존중
04		도덕적 인격체
 모든 인간의 존엄성 존중 강조		

VS

니체	위계질서	거리의 파토스
01		인간 사이의 차이와 위계를 중요
02		탁월한 인간은 고귀함을 위해 거리두기
03		차이의 강조
04		무시와 경멸의 태도 위험성
 인간의 사이의 위계 거리의 파토스		